

객관적인 신체적 매력과 행복

김진주 구자영 서은국
연세대학교

현대 한국사회에서 신체적 매력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해볼 때, 객관적으로 신체적 매력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더 행복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객관적인 신체적 매력과 주관적 행복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107 명의 한국 대학생들의 사진을 촬영하여 평가하고 그들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행복의 수준을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남성표본에서는 타인에 의해 평가된 객관적인 신체적 매력은 행복과 관계가 없었다. 반면 여성표본에서는 객관적인 신체적 매력이 행복의 하위 요소인 긍정적 정서 수준과 유일하게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흥미롭기도, 자신의 신체적 매력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는 행복과 높은 상관이 있었다.

주요어 :신체적 매력, 행복, 주관적 안녕

현대 사회에서 신체적 매력은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 여겨진다. 신체적으로 매력적인 사람들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이점을 누리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은 이들이 신체적 매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른 영역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다(Hatfield & Sprecher, 1986; Berscheid & Walster, 1974; 정명선 김재숙 2001). 그들은 신체적으로 매력적이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흥미 있고 주도적이며 친절하고 사교적이고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평가된다(Feingold, 1992a). 사람들은 흔히 ‘아름다운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사고의 틀에서 매력적인 사람들을 더 호의적으로 평가하고 선호한다(Dion, Berscheid, & Walster, 1972).

신체적 매력은 생애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발휘한다.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신체적으로 매력적인 아이들은 선생님으로부터 더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는다(Adams &

Cohen, 1976; Wilson & Niss, 1976). 교육을 마치고 직업을 구할 때도 신체적 매력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선호되며(Collins & Zebrowiz, 1995), 이성 관계에서 상대방을 선택할 때 역시 신체적으로 매력적인 사람들이 선호된다(Feingold, 1992b). 심지어 죄에 대한 판결을 받을 때에도 신체적으로 매력적인 사람들은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가벼운 형량을 받게 된다(Hatfield & Sprecher, 1986).

또한 신체적 매력은 타인의 평가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평가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Goldberg, McCoy, Pyszczynski, Greenberg, & Solomon, 2000). 신체적 매력에 대한 자기인식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살펴본 여러 연구들은 자신의 신체적 매력을 높게 평가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결과를 보였다(양계민, 정진경, 1993; 정명선, 2003; 홍금희, 2006).

김진주, 구자영, 서은국은 연세대학교에 재직하고 있음.
교신저자 : 김진주, (120-74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전화 :
E-mail : gnomon@hanmail.net

이처럼 신체적으로 매력적인 사람들은 광범위한 삶의 영역에서 혜택을 누리게 되고, 자신에 대해서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매력적인 사람들이 더 행복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실제로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매력적인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 앞서 45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체적 매력과 행복의 관계에 대하여 -3신체적으로 매력적일수록 불행)부터 3(신체적으로 매력적일수록 행복)까지의 7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신체적 매력과 행복의 부적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대부분이 신체적으로 매력적일수록 행복할 것이라고 ($M=1.93$, $SD=.78$) 대답하였다.

그러나 신체적 매력이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일반적인 믿음과 달리, 서양에서 이루어진 Diener와 동료 연구자들의 연구(Deiner, Wolsic, & Fujita, 1995)에서 신체적 매력은 행복과 매우 낮은 상관을 보였다. 그들의 연구에서는 사진을 보고 10여명의 평가자들이 신체적 매력을 측정하였는데, 사진에 나타난 표정과 헤어스타일 옷 화장 등 꾸미는 요소를 통제할수록 신체적 매력과 행복의 상관은 더 낮아졌다. 반면, 신체적 매력에 대한 자기평가 는 주관적 행복과 훨씬 높은 상관을 보였다.

현재까지 한국 문화에서 이루어진 신체적 매력 관련 연구와 행복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신체적 매력에 대한 자기인식과 행복의 관련성을 다루었을 뿐(박은아, 2003), 타인이 평가한 객관적 신체적 매력과 행복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서양문화에 비해 사람을 평가할 때 내적인 것보다 외적인 것을 중시하며(박정현, 서은국, 2005), 사회적 평가가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Suh, Diener, Updegraff, 2006) 한국문화에서 신체적 매력과 행복이 서양 문화에서보다 더 밀접한 관계일 수 있기 때문에, 한국표본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타인이 의해 평가된 신체적 매력과 행복의 관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Suh(in press)에 의하면, 동양문화에서는 서양문화에 비해 타인의 눈에 비쳐지는 사회적 자기(social self)가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주관적 자기(subjective self)보다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한다. 사회적 자기는 주관적 자기와 달리 본질적으로 자기 외부의 시선에 의해 관찰 가능한 정보로 구성되기 때문에, 신체적 매력 역시 사회적 자기

의 중요도가 증가할수록 그 중요성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타인을 평가할 때 외적인 단서(예, 외모, 사회적 지위)에 비해 내적인 단서(예, 감정, 생각)를 더 중시한다는 서양 연구결과와 달리, 박정현, 서은국(2005)의 연구에서 한국 대학생들은 사람들의 본질을 평가할 때 내적 단서와 외적 단서를 동등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이 연구는 상대적으로 외적 단서를 중시하는 경향성이 외모와 사회적 지위와 같은 행복의 외적 조건을 중시하는 정도와 정적 상관을, 내면의 평안함이나 낙관적 태도와 같은 행복의 내적 조건을 중시하는 정도와는 부적 상관을 보인다는 것을 밝혔다.

이처럼 서양에 비해 외적인 것을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는 동양 문화의 특성은, 외적인 것에 대한 성취욕구와 추구행동으로 이어진다. 신체적 매력 역시 예외가 아니다. 최근 타임 아시아판(2002.8.5.)에서는 한국, 일본, 태국 등 아시아에서 성형수술이 전례 없이 증가하고 있는 실태에 대하여 보도한 바 있다. 근래, 서울대 의과대학 팀이 1565명의 한국 여대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그들 중 52.5%가 성형수술을 경험한 바 있고, 82.1%가 성형수술을 희망한다고 응답하였다(한국경제 2006.9.25). 또한, 22개국 남녀 대학생 18,512명을 대상으로 한 국제건강행태연구(Wardle, Haase, & Steptoe, 2006)에서 한국 여대생들은 비만도를 보여주는 체질량 지수(BMI)가 22개국 중 가장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체중감량을 시도하는 비율은 77%로 가장 높았다. 미국 여대생들은 체질량 지수가 22개국 중 가장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과체중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한국과 비슷했다(한국 : 43%, 미국 : 45%). 전체적인 동향을 보면, 세계 22개국을 5개 지역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한국, 일본 등이 속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체중에 가장 민감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한국 대학생 7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의하면(문화일보, 2006.10.2.), ‘외모가 취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대답한 비율이 96.6%, ‘외모가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용해야 한다’에 동의한 비율은 95.4%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설문 및 조사 결과들은 한국 문화에서 신체적 매력이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본 연구의 주목적은 한국문화에서 타인에 의해 평가된 객관적인 신체적 매력이 행복과 어떤 관련성을 맺고 있는

지 살펴보는 데 있다. 객관적으로 신체적 매력을 측정하기 위해, 참가자들의 사진을 촬영하여, 100여명의 대학생들로 하여금 신체적 매력을 판단하게 하였다. 부가적으로, 신체적 매력이 20대에 중요한 삶의 영역인 이성교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신체적 매력과 이성교제의 관계가 신체적 매력과 행복의 관계와 관련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려 한다.

방법

연구 대상

심리학 교양 수업 및 전공 수업을 듣는 대학생 216명이 참가하였다. 이 중 106명(남 60명, 여 47명)은 주관적 안녕 및 전통적으로 주관적 안녕과 관계 있다고 밝혀진 변인들(구체적 삶의 영역에 대한 만족도, 자존감, 성격 등)에 대한 설문을 작성한 후 사진을 찍었다. 나머지 참가자 108명은 사진에 나타난 신체적 매력을 평가하였다.

절차

설문 및 사진촬영에 임한 참가자들은 연세대학교 심리 실험 사이트를 통해 모집되었다. 본 연구의 제목은 행복의 조건이었으며 참가자들은 사진촬영과 외모평정에 대하여 모르는 상태로 실험실로 왔다. 약 5명 내외의 참가자들이 한 회기에 참가하였으며, 먼저 설문을 작성한 후 다른 실험실로 옮겨 개인적으로 사진을 촬영하였다. 참가자들은 외모평정에 대한 동의서를 읽고 서명한 후 연구의 목적에 대한 설명이 쓰여진 카드를 받고 돌아갔다. 사진에 나타난 신체적 매력에 대한 평가는 세 회기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강의실에서 대형 스크린을 통해 각각 107개의 사진을 보고 평가하였고 연구목적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돌아갔다.

설문내용

주관적 안녕 (Subjective Well-Being)

본 연구에서는 행복을 측정하기 위하여 주관적 안녕(Diener, Suh, Lucas, & Smith, 1999)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주관적 안녕은 삶의 만족도, 정적 정서, 부적 정서의 세 가지 척도로 구성되며, 주관적 안녕이 높은 사람은 삶에 만족하고 정적 정서를 자주 경험하며 부적 정서를

자주 경험하지 않는다. 삶의 만족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Diener, Emmons, Larsen, & Griffin, 1985)는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했는가를 측정하는 척도로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예,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 7점 척도를 사용하여 평정한다.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는 참가자들이 지난 한 달간 재시된 24개의 정서를 얼마나 자주 느끼었는가를 7점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다(Diener, Smith, & Fujita, 1995). 기쁨, 사랑, 행복감 등 8개의 정적 정서 경험의 평균을 정적 정서로, 두려움, 슬픔, 화, 짜증, 불안 등 16개의 부적 정서경험의 평균을 부적 정서로 정의하였다. 삶의 만족도, 정적 정서, 부적 정서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각각 .78, .86, .85였다.

구체적 삶의 영역에 대한 만족도

외모와 이성교제 영역에서의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설문을 작성하는 동안 이 연구의 가설을 최대한 알리지 않기 위해서 다른 6개의 영역들(학문적 수행, 가족 관계 등)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을 포함하였다. 구체적 삶의 영역에 대한 만족도 역시 7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자존감(Self-esteem)

Rosenberg(1965)의 자존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신에 대한 평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예,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4점 척도로 평가한다. 자존감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84였다.

성격

성격의 5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Ten-Item Personality Inventory(TIPI; Gosling, Rentfrow, & Swann, 2003)를 사용하였다. TIPI는 10문항으로 참가자들은 각 문항의 형용사가(예, 외향적인) 자신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를 7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기타

지난 1년간 이성교제를 한 기간을 월단위로 측정하고, 현재 이성교제 중에 있는 참가자들에 한하여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또한 자신의 신체적

매력을 7점 척도로(1 : 전혀 매력적이지 않음 - 7 : 매우 매력적임) 평가하게 하였다.

신체적 매력 평정

설문 작성 후 참가자들은 다른 연구실로 이동하여 개별적으로 3장의 사진을 찍었다. 사진촬영에는 삼각대 위에 고정시켜 놓은 캐논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했다. 각 참가자들은 표시된 곳에 서서 먼저 전신사진을 찍고, 표정에 대한 지시 없이 얼굴사진을 찍었다. 마지막으로 표정에 대한 지시가 없을 경우 행복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밝은 표정(미소)을 지어 신체적 매력이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표정이 신체적 매력 평가에 미치는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무표정한 얼굴을 하라는 지시를 한 후 얼굴사진을 찍었다.

총 321장의 사진은 사진평정을 위해 종류별로(전신, 자연스런 표정, 무표정) 하나의 파워포인트 파일로 묶여졌으며, 사진의 순서를 무선행하여 순서효과를 최소화하였다. 신체적 매력 평정 회기 참가자들은 세 그룹으로 나누어져(전신 38명, 자연스런 표정 33명, 무표정 33명) 한 종류의 사진 107장을 평가하였다. 참가자들로 하여금 한 종류의 사진만 평가하게 한 것은, 여러 종류를 함께 평가할 경우 먼저 본 사진에 대한 평가가 이후에 본 사진에 대한 평가에 줄 수 있는 영향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참가자들은 사진에 나타난 사람의 신체적 매력을 10점 척도로(1점 : 전혀 매력 없음 - 10점 : 매우 매력적임) 평가하도록 지시 받았으며 각 사진은 5초간 제시되었다. 안면이 있는 사람에 대한 신체적 매력의 평가는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인의 사진이 제시될 경우 번호에 표시하게 하였다. 신체적 매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정치를 얻기 위해 지인에 의한 평가(전체 11770개의 평가 중 58개)는 전체평가에서 제외하였다.

사진 종류 별 평가는 평가자를 문항으로 한 내적 합치도가 각각 .97(전신), .96(자연스런 표정), .97(무표정)로 사진에 나타난 대상의 신체적 매력에 대해 평가자들 간 동의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신체적 매력 지각에 있어 사람들이 동의하는 어느 정도 '객관적인' 기준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 얻은 신체적 매력 평정치 역시 '객관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과

사진 종류별 평가의 전체 표본 평균은 무표정 4.78 ($SD=.91$), 자연스런 표정 4.52($SD=.95$), 전신 4.6($SD=1.05$)이었다. 신체적 매력을 10점 척도로 평가하였고, 이 값들은 모두 중간 값인 5점을 넘지 못하였으므로 대학생들의 신체적 매력에 대한 기준이 높다는 인상을 주었다. 반면, 외모자기평가의 평균은 남녀 모두 7점 척도의 중간점수인 4점을 넘어(남 : $M=4.35$, $SD=1.0$, 여 : $M=4.53$, $SD=.92$),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를 평가할 때도 자기긍정편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종류의 사진에 대한 신체적 매력 평가 평균값들은 높은 상관을 보였다. 두 얼굴 사진들은(자연스런 표정과 무표정) .92($p<.01$), 전신사진과 얼굴 사진들은 .78($p<.01$)의 상관을 보였다. 이는 각 사람의 신체적 매력이 표정이나 신체의 특정 부분을 넘어선 보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인 신체적 매력과 주관적 안녕의 상관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전체표본에서는, 세 종류의 사진에 의해 타인이 평가한 객관적인 신체적 매력과 주관적 안녕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서양에서 이루어진 Diener 등(1995)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외적인 면을 중시하는 동양권인 한국 문화에서도 객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적 매력과 행복의 관계는 미미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남녀를 나누어 분석한 결과, 여성 표본에서 자연스런 표정에 나타난 신체적 매력과 정적 정서가 .30($p<.05$)의 상관을 보였으나, 주관적 안녕의 다른 두 요소인 삶의 만족도와 부적 정서와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고, 무표정이나 전신사진에 의해 평가된 신체적 매력은 주관적 안녕의 세 하위 요소 모두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유독 여성표본에서 자연스런 표정에 나타난 신체적 매력과 정적 정서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인 것은, (1) 신체적 매력이 정적 정서에 영향을 준 것이라 해석할 수도 있지만 (2) 자연스런 표정의 사진에는 참가자가 사진을 찍을 당시 경험한 정적 정서가 반영될 수 있고, 그 결과 사진에 표현된 정적정서 수준이 매력평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특히,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자연스럽게 정서를 표현하는 경향은 두 번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정리하면, 전반적으로

표 1. 주관적 안녕과 신체적 매력의 상관.

	삶의 만족도	정적 정서	부적 정서
전체표본 (N=107)			
무표정	.06	.08	.00
자연스런 표정	.10	.15	-.02
전신	.07	.10	.03
주관적 신체적 매력	.41**	.36**	-.09
남자 (N=60)			
무표정	.04	-.18	-.17
자연스런 표정	.11	-.06	-.25
전신	.06	-.06	-.12
여자 (N=47)			
무표정	-.04	.26	.09
자연스런 표정	-.02	.30*	.10
전신	-.07	.18	.13

** $p < .01$, * $p < .05$

볼 때 객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적 매력과 행복의 관계는 미미하며 이 관계는 여성들에게 정서적인 측면에만 한정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참고적으로, 평가자의 성별에 따른 객관적인 신체적 매력과 행복의 상관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가적으로, 신체적 매력과 자존감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타인에 의해 평가된 객관적 신체적 매력은 남녀 표본 모두에서 자존감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아(남 : $r = -.12$, 여 : $r = -.09$), 객관적 신체적 매력이 높다고 해서 자존감이 높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타인이 평가한 객관적 신체적 매력과 달리, 자신의 신체적 매력을 스스로 평가한 주관적인 신체적 매력은 삶의 만족도($r = .41$, $p < .01$) 그리고 정적 정서($r = .36$, $p < .01$)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표 1 참고). 이는 자기 외모를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한 것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행복한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것 일 수도 있다. 자신이 평가한 신체적 매력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타인이 평가한 신체적 매력을 첫 번째 예측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객관적 신체적 매력은 주관적 신체적 매력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으며($\beta = .30$, $p = .002$), 다음으로 주관적 안녕을 예측변인으로 추가한 결과 설명력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beta = .46$, $p < .001$). 이는 가정한 것과 같이, 객관적인 신체적 매력을 통제한 후에도, 주관적 안녕이 높은 사람

들이 자신의 신체적 매력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신체적 매력에 대한 자기 평가와 타인의 평가 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성차가 나타났다. 남성표본에서는 주관적 신체적 매력과 객관적 신체적 매력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은 반면($p = .13$), 여성표본에서는 $p < .01$ 수준에서 두 평가간의 유의미한 상관(.40)이 있었다. 반면, 자신이 평가한 주관적인 신체적 매력과 자존감 간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남성표본에서는 두 변인이 매우 높은 상관을 보인 반면($r = .66$, $p < .01$), 여성표본에서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r = .20$, $p = .18$). 이는 여성들은 자신의 신체적 매력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남성들은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자존감)가 객관적 신체적 매력과 상관없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 삶의 영역 만족도 중 외모 만족도는 전반적 삶의 만족도, 그리고 정적 정서와 유의미한 상관($r = .45$, $p < .01$, $r = .30$, $p < .01$)을 보여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삶에 만족하고 정적 정서를 더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른 구체적 삶의 영역들에 대한 만족도와 함께 주관적 안녕을 예측하는 기질적 변인(외향성, 신경증)과 자존감을 예측변인으로 하여 전반적 삶의 만족도와 정적 정서에 대한 회귀분석을 한 결과(표 2), 외모 만족도는 전반적 삶의 만족도와 정적 정서 모두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14$, $p = .07$, $\beta = .04$, $p = .63$). 이는 외모 만족도보다 타고난 기질이나 자존감, 또는 다른 영역의 만족도가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신체적 매력과 이성교제 관련 변인과의 관계를 상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객관적 신체적 매력은 이성교제 영역에서의 만족도($r = .23$, $p < .05$)와 일 년 중 이성교제를 한 기간($r = .26$, $p < .01$)과 정적 상관을 보였지만, 현재 이성교제 중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와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객관적으로 신체적 매력이 높은 사람들이 이성교제를 할 가능성이 더 높지만, 이성교제를 하는 동안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표 2. 기질변인과 구체적 삶의 영역별 만족도가 전반적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B	SE B	Beta
단계 1			
외향성	.04	.05	.07
신경증	-.10	.08	-.11
자존감	1.16	.18	.57***
단계 2			
외향성	.01	.05	.01
신경증	-.07	.07	-.08
자존감	.46	.19	.23*
학문적수행 만족도	.13	.06	.17*
외모 만족도	.12	.07	.14
친구관계 만족도	.04	.06	.05
가족관계 만족도	.21	.05	.33***
이성교제 만족도	.05	.04	.09
여가생활 만족도	.03	.05	.04
학교생활 만족도	.08	.07	.10
건강 만족도	.04	.05	.05

주. 단계 1의 경우 $R^2=.42$; 단계 2의 경우 $\Delta R^2=.21$ (둘 다 $p<.001$ 임).

*** $p<.001$, * $p<.05$

신체적 매력과 이성교제 관련 변인과의 관계는 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이성교제중인 집단(남 : 37명 여 : 26명)과 이성교제를 하지 않는 집단(남 : 22명, 여 : 21명) 간 신체적 매력의 평균값이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 실시한 결과, 남성표본에서는 두 집단이 객관적 신체적 매력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MD=.23$, $p=.28$), 여성표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MD=.84$, $p=.005$). 이성교제 여부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신체적 매력을 예측변인으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남성표본에서 신체적 매력은 이성교제여부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하였으나($\beta=.38$, $p=.28$), 여성표본에서는 신체적 매력의 예측력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94$, $p=.01$). 이 결과는 이성 간의 관계에 있어 신체적 매력이 가지는 중요성이 남녀 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논 의

본 연구는 한국 문화에서 신체적 매력과 행복의 연관성을 알아보는데 주목적이 있었다. 신체적 매력은 삶의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한국 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삶의 주관적인 영역인 행복에 있어서 신체적 매력이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작음을 밝혔다. 조금 더 자세히 기술하면, 타인에 의해 객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적 매력은 여성 표본에서 한해서, 세 장의 사진 중 자연스러운 표정에서만, 주관적 안녕의 세 요소 중 하나인 정서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반면, 남성 표본에서는 신체적 매력이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신체적 매력이 높을수록 행복할 것이라는 한국 대학생들의 인식과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과 달리 타인에 의해 평가된 객관적 신체적 매력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약한 이유는 무엇일까? 기존의 주관적 안녕에 관한 연구들은 사회경제적 지위, 교육수준 등과 같은 개인 외적 요인들에 비해 태도와 성격과 같은 개인 내적요인들이 주관적 안녕 수준에 더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Diener, Suh, Lucas, & Smith, 1999; Diener, Lucas, 1999).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살펴본 객관적 신체적 매력을 본질적으로 타인의 평가에 기초한 개인 외적 요소이기 때문에, 개인의 내적인 주관적 안녕과의 관계가 미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에 의해 밝혀진 높은 신체적 매력이 주는 다양한 혜택들(예, 호의적 평가, 관심, 데이트 횟수, 취직 등) 역시 개인 외적 변인들이기 때문에, 높은 신체적 매력에 따른 객관적인 결과들이 주관적 수준에서 경험되는 행복감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적응(Hedonic adaptation; Frederick & Lowenstein, 1999)의 효과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정하게 반복되는 객관적인 자극에 대한 정서적 반응은 반감되며 마련이다. 따라서 신체적 매력이나 그로 인한 객관적 결과들 또한 일시적인 행복감의 효과를 지닐 뿐, 지속적으로 행복감 수준을 향상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객관적인 신체적 매력과 행복의 관계가 미미하다면, 신체적 매력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을 과대평가하고 외모를 중시하는 한국 문화의 사회적 현상이 한국인들의 주관적 안녕 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박정현과 서은국의 연구(2005)에서 행복하기 위해 외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행복과 외모의 관련성이 낮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할 때, ‘행복하기 위해 외모가 중요하다’는 신념은 잘못된 목표설정을 통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타인이 평가한 객관적인 신체적 매력과 달리 자신의 외모에 대한 평가는 전체 표본에서 주관적 안녕의 두 요소(삶의 만족도, 정적정서)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이는 타인의 평가보다 자신의 평가가 주관적 안녕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매력적이라고 평가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매력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주관적인 행복감에는 더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신체적 매력에 대한 ‘인식’이 자존감이나 주관적 안녕과 관련이 있다는 기존 연구들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양계민, 정진경, 1993; 정명선, 2003; 홍금희, 2006; 박은아 2003).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몇몇 흥미로운 성차가 발견되었다. 먼저 여성들의 경우 타인들의 신체적 매력 평가와 자신의 신체적 매력 평가가 유사하였지만, 남성의 경우 이 둘은 전혀 관련이 없었다. 이는 여성들이 남성들에 의해 자신의 외모에 대해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타인들의 외모에 대한 피드백에 더 민감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여성들이 남성들에 의해 자신의 신체적 매력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민감한 것은 진화론적으로 여성들에게 신체적 매력이 중요한 특질이기 때문에(Buss, 1989; Feingold, 1992b) 여성들이 신체적 매력에 대한 피드백을 더 민감하게 알아채는 능력이 발달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남성에 의해 여성에게 외모에 대해 실제적으로 더 많은 피드백이 주어질 수도 있다. Fredrickson과 Roberts(1997)는 대상화 이론(objectification theory)’을 제시하면서, 실제로 “여성들의 신체는 남성들에 의해 더 많이 응시되고, 평가되고, 항상 대상화 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더 나아가 그들은 사회화를 통해 여성들이 자신의 신체를 대상화하여 바라보고 평가하는 시각을 내면화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여성들이 남성들에 의해 자신의 신체적 매력을 타인의 평가와 유사하게 더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여성들이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내면화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다른 한 가지 언급해야 할 성차는 남성들과 달리 여성

들의 경우 객관적 신체적 매력이 정적 정서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에게 신체적 매력이 더 중요한 자원이라는 것을 시사한다(Buss, 1989; Feingold, 1992b). 앞서 언급한 Fredrickson과 Roberts (1997)의 논문에서 그들은 “여성의 신체가 타인에게 어떻게 비춰지는가가 그녀의 삶의 경험을 결정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여성의 신체적 매력은 데이트 경험, 결혼 상대의 선택, 인기와 같은 사회적 영역 뿐 아니라 직장에서의 대우나 차별, 교육 수준과 능력의 인정과 같은 성취 영역에 까지 남성의 신체적 매력에 비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Berscheid, Dion, Walster, & Walster, 1971; Margolin, & White, 1987; Cash, Gillen, & Burns, 1977; Wallston, & O’Leary, 1981). 한 예로,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남성과 달리 여성은 신체적 매력 정도에 따라 이성교제를 하는가의 여부가 유의미하게 달랐다. 또한 이성교제중인 여성은 이성교제를 하고 있지 않은 여성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신체적 매력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남성 표본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남성과 달리 여성의 신체적 매력은 20대의 대학생들이 이성교제라는 삶의 경험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정리해보면, 신체적 매력과 행복의 관계가 남성표본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여성표본에서는 미미하지만 나타난 것은, (1) 여성들이 남성들에 의해 자신의 신체적 매력에 대한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내면화하는 경향이 있고 (2) 남성의 신체적 매력에 의해 여성의 신체적 매력이 삶의 경험에(본 연구에서는 20대의 삶에서 중요한 영역인 이성교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대학생 시기는 신체적 매력에 따른 차별이나 혜택이 다른 시기에 비해 작을 수 있다. 본격적으로 배우자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결혼 적령기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나 신체적 매력이 구직이나 직장에서의 성과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삶의 측면에 영향을 주는 시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신체적 매력과 행복의 관계가 더 밀접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객관적인 신체적 매력 평정의 표준편차가 1내외인 것은 참가자들의 신체적 매력 수준이 비교적 동질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생의 다양한 시점에서 신체

적 매력 수준이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신체적 매력과 행복의 관계가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신체적 매력이 일반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행복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객관적이고 실증적으로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행복하기 위해서, 타인의 눈이 아닌 자신의 눈으로 보는 자신에 대한 평가가 더 중요하고,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 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참 고 문 헌

- 문화일보 (2006.10.2.). 요즘 대학생들 생각은 … “정치 무관심” 80.5%.
- 박은아 (2003). 신체존중감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문화 연구 : 한국과 미국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22, 35-56.
- 박정현, 서은국 (2005). 사람의 내-외적인 모습에 두는 상대적 비중과 행복관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9, 19-31.
- 양계민, 정진경 (1993). 자신의 신체적 매력에 대한 인식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 청소년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학술발표논문집*, 67-74.
- 정명선 (2003). 성인 여성의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이 자존심과 외모관련 행동에 미치는 영향. *복식*, 53, 165-179.
- 정명선, 김재숙 (2001). 지각된 얼굴 매력성과 외복 적절성이 호감도, 특질 판단을 매개하여 과제 수행 능력 판단에 미치는 영향. *복식*, 51, 77-91.
- 한국경제 (2006.9.25.). ‘저녁 안 먹고 살 빼기’ 빛나간 디어트.
- 홍금희 (2006). 자아존중감에 대한 외모의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비만도 및 신체이미지의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30, 348-357.
- Adams, G. R., & Cohen, A. S. (1976). Characteristics of children and teacher expectancy : An extension to the child's social and family lif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70, 87-90.
- Berscheid, E., Dion, K. K., Walster, E., & Walster, G. W. (1971). Physical attractiveness and dating choice : A test of the matching hypothesi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7, 173-189.
- Berscheid, E. E., & Walster, E. (1974). Physical attractiveness. In L.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Vol.7, pp.157-215). New York : Academic Press.
- Buss, D. (1989). Sex differences in human mate preferences : Evolutionary hypotheses tested in 37 cultures.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12, 1-49.
- Cash, T. F., Gillen, B., & Burns, D. S. (1977). Sexism and “beautyism” in personnel consultant decision making.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2, 301-310.
- Collins, M., & Zebrowitz, L. (1995). The contributions of appearance to occupational outcomes on civilian and military setting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5, 129-163.
- Diener, E., Emmons, R., Larsen, R., & Griffe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Diener, E., & Lucas, R. E. (1999). Personality and subjective well-being. In D. Kahneman, E. Diener, & N. Schwarz(Eds.), *Well-being : The foundations of hedonic psychology*(pp.213-229). New York : Russell-Sage.
- Diener, E., Smith, H., & Fujita, F. (1995). The personality structure of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130-141.
- Diener, E., Suh, E. M., Lucas, R. E., & Smith, H. L. (1999). Subjective well-being :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 276-302.
- Diener, E., Wolsic, B., & Fujita, F. (1995). Physical attractiveness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120-179.
- Dion, K. K., Berscheid, E., & Walster, E. (1972). What is beautiful is g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4, 285-322.
- Feingold, A. (1992a). Good-looking people are not what we think. *Psychological Bulletin*, 111, 304-341.

- Feingold, A. (1992b). Gender differences in mate selection preferences : A test of the parental investment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12*, 125-139.
- Frederick, S., & Lowenstein, G. (1999). Hedonic Adaptation. In D. Kahneman, Diener, E., & Schwarz, N.(Eds.), Well-being : *The foundations of hedonic psychology* (pp.302-329). New York : Russell Sage.
- Fredrickson, B. L., & Roberts, T-A. (1997). Objectification theory.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 173-206.
- Goldenberg, J. L., McCoy, S. K., Pyszczynski, T., Greenberg, J., & Solomon, S. (2000). The body as a source of self-esteem : The effect of mortality salience on identification with one's body, interest in sex, and appearance monitor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118-130.
- Gosling, S., Rentfrow, P., & Swann, W., Jr. (2003). A very brief measure of the big-five personality domain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7*, 504-528.
- Hatfield, E., & Sprecher, S. (1986). *Mirror, mirror... : The importance of looks in everyday life*.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Margolin, L., & White, L. (1987). The continuing role of physical attractiveness in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21-27.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uh, E. M. (in press). Downsides of an overly context-sensitive self : Implications from the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 Suh, E. M. & Diener, E., & Updegraff (2006). *From culture to priming conditions : How self-construal influences life satisfaction judgments*. Manuscript under review.
- Time Asia Magazine (2002.8.5.). Changing faces.
- Wallston, B. S., & O'Leary, V. (1981). Sex makes a difference : Differential perceptions of women and men. In L. Wheeler (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2, pp.9-41). Beverly Hills, CA : Sage.
- Wilson, G., & Nias, D. (1976). Beauty can't be best. *Psychological Today, 96-103*.
- Wardle, J., Haase, A. M., & Steptoe, A. (2006). Body image and weight control in young adults : International comparisons in university students from 22 coun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Obesity, 30*, 644-651.

Do Physical Attractiveness and Happiness come Together?

Jinjoo Kim Jayoung Koo Eunkook M. Suh
Yonsei University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physical attractiveness (PAT) in modern Korean society, it seems plausible that physically attractive individuals are happier than less attractive people. To examine this relationship, 107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reported their subjective well-being (SWB). Later, their pictures were taken and rated by others in terms of attractiveness. The result shows that objective PAT (evaluated by others) had no relationship with SWB in the male sample. Among females, however, objective PAT significantly related with their positive affect levels. Interestingly, however, subjective evaluations of PAT correlated strongly with SWB.

Key words : physical attractiveness, subjective well-being

원고접수 : 2006년 10월 13일
심사통과 : 2006년 11월 8일